

군덕리·君德里

선장면의 한 마을로 현재 세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다. 1구는 장터라 하고, 2구는 다실기라 하고, 3구는 노랫골이라 한다. 군덕리의 인구는 총 919명이며, 가구수는 310가구이다. 1구에 183가구, 2구에 50가구, 3구에 77가구가 분포되어 있으며 1구에 가장 많은 세대가 살고 있다. 마을 전체적으로 68%인 233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고 축산업도 5.5%기 종사하고 있다. 300여년 전에 전주 이씨가 노랫골에 처음 터를 잡았다. 지금은 여러 성씨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군덕리는 본래 신장군 대서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흥언리, 장대리, 신리, 군자동의 각 일부와 면천군 비방면의 하덕리를 병합하여 군자동과 하덕리의 이름을 따서 군덕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한편 군덕리의 일원에 선장 3대 명당의 하나인 선인양장이란 명당이 있다고 한다.

<군덕리 위치도>



⊗ 장터, 다실기, 노랫골 마을

군덕 1리인 장터 마을은 선장면의 시장이 있는 마을로 처음에는 시장이 선창리 선장에 있었는데, 이곳 앞에 개가 있어서 수운이 편리하므로 점점 번창해짐에 따라 이곳으로 옮기는 동시에 초정면 선장면으로 고쳐서 선장면의 주요지가 되었다. 큰 선장 장터 동쪽에 있는 마을로 현 장터가 생기기 전의 장터이다.

군덕 2리인 다실기 마을은 옛날에 해변가였던 이 부락은 입주민 입주민 한두 세대가 처음 정착하기 시작하여 10여 세대가 완전 정착할 때 해변가를 막아 개간하면서 주위에 과실수가 많이 식재하였하여 다실기라 칭하기도 하지만 이조말 이곳에 가구가 살았는데 모두가 자손이 귀하자 어느 스님이 번창하라고 다실기라 지어주었다는 전설이 있다. 장터남쪽에 있는 둔덕 밑이던 군덕 3리인 노랫골 마을은 다양한 자연부락이 석여 있는데 고려공양왕 3년(1391)에 성을 장교리 노루지에 쌓았을 때 노루가 놀아서 이마을 앞 깊은 내에 빠져죽었으므로 노루골이라 하던 것이 노랫골이 되었다 함. 300여년전에 전주 이씨가 살면서 군자동으로 고쳤다 함. 2반은 일제 말기 옹기집이 있어 음터골이며 3반은 군덕교 옆산에 갯물이 들어올 때 큰 바위가 있었다하여 신엄리라 칭하며 4반은 쇠파닐골 이라칭하며 다실기 옆에 있는 마을이

다.

< 조사당시 군덕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장터 마을은 위도 36-47-10, 경도 126-52-10인 지역으로, 마을을 가로지르는 623국도를 끼고 있다.

다실기 마을은 위도 36-46-50, 경도 126-52-30인 위치에 있으며 장터에서 남 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엔 논이 많은 마을이라 다른 마을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2) 현황

군덕리(장터마을)의 인구는 남자 295명, 여자 283명으로 총 578명이다. 183가구가 살고 군덕 2리(다실기 마을)는 남자 56명, 여자 74명으로 총 130명이고 (50가구) 군덕3리(노랫골)는 남자 101명, 여자110명, 총 211명이(77가구)살고 있다. 아래도표를 보듯 군덕 2리, 3리보다 군덕 1리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 인구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군덕 1리(장터마을)	578 명	295 명	283 명
군덕 2리(다실기 마을)	130 명	56 명	74 명
군덕 3리(노랫골 마을)	211 명	101명	110 명

장터마을은 35%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실기 마을은 60%, 노랫골은 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경지 현황에서는 장터마을이 88ha로 농경지 면적이 넓으며 그 다음이 다실기마을이 65ha, 노랫골마을이 57ha로 조사되었다.

장터마을	20%	11%	13%	6%	5%	6%	39%
다실기마을		16%			6%	8%	70%
노랫골마을	17%	17%	4%	4%	8%	12%	38%

- 학생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터마을	20	15	15	4
다실기마을	5	5	3	3
노랫골마을	8	4	12	6

- 마을 호당 평균 소득

장터마을은 1,200만원/년

다실기마을은 700만원/년

노랫골마을은 500만원/년

- 최고령자

장터마을은 103세의 천덕순 할머니

노랫골마을은 96세의 정씨 할머니이시다.

3) 자연 경관

장터마을은 마을 산속에 있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마을이 도로 옆에 있긴 하나 도로와 집들 사이엔 숲이 있고 마을 뒤로는 큰 산이 있다. 숲과 산 사이에 집들과 논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도 나무가 울창해 마을을 한 눈에 보긴 어렵다. 마을 깊숙히 들어간 산 밑엔 다른 마을들과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 3일, 8일에 장이 서고 있다.

다실기마을은 둔덕 밑에 있는 마을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의 마을이다. 도로 서쪽으로는 도로가의 집 몇채를 제외하곤 전부 논이며, 동쪽으로는 높은 지대의 마을이다. 마을은 언덕처럼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집 몇채가 있고 그 외엔 더 깊숙히 들어가 숲에 싸여 있다. 마을 입구에 회관이 보여 마을을 찾긴 쉽지만 집들을 보기가 힘들다. 마을 뒤쪽으로는 봉우리가 세 개인 삼봉산이 버티고 서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신창군 대서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흥언리, 장대리, 신리, 군자동의 각 일부와 면천군 비방면의 하덕리를 병합하여 군자동과 하덕리의 이름을 따서 군덕리라 하여 아산군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일제시대에도 마을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아 1914년 행정구역 폐합과 함께 세 개의 구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인다.

5) 입 향

장터 마을은 전주 이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았고 그 다음으로 김씨가 들어와 살았다. 지금도 김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박씨도 약간 있다. 장터는 다실기와 노랫골에 비해 여러 성씨들이 많은 편이다. 다실기 마을은 특별히 오래 산 성씨는 없으나 마을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씨가 현재 4대째 이어 내려오고 있다.

6) 지 명

- 산 맥 : 장터 동남쪽에 있는 마을. 새로된 마을이라 하여 지은 이름임.
- 웃장벌 : 옛날의 소재지
- 아랫장벌 : 현재의 소재지
- 선장포구 : 선장 앞에 잇는 나무, 지금은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음.
- 큰 나무터 : 선장에서 당진으로 건너가는 나무터

·작은 나루터 : 큰 나루터 위의 나루터

·쇠파닛 : 다실기에 포함되는 마을인데, 집들이 떨어져 있어 작은 하나의 마을로 불린다. 옛 쇠파닛과 아랫 쇠파닛으로 나뉜다. 옛날 금을 캐던곳으로 지금도 금광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다.

·삼봉산 : 마을 뒤쪽의 산으로 봉이 세 개라서 삼봉산이라 함. 아산에서도 알아주는 산중의 산.

·군덕리 산성 : 다실기 마을 구능(20m)에 축조된 평지성, 오래전 없어지고, 자리에 종자공급소가 생김. (4~5년전)

7) 전 설

- 다실기

선장면 다실기라는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이 마을에 최생원이 살았는데 그는 재산은 풍족하고 인품이 너그러우며 집안도 화목하여 살기에 불편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생원은 걱정거리가 있었다. 삼대독자인 그가 40이 넘었는데도 대를 이을 아들은커녕 안고 어를 딸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의 부인 유씨는 그것이 걱정되어 새벽마다 불공을 올기 벌써 3년, 그러나 아직도 부처님의 은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마을 최생원만이 손이 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손이 많아 다복하다는 소리를 듣던 집안의 사람들도 이 마을에 이사온 뒤부터는 대를 잇기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도 살림 걱정보다는 자식조는 것이 더 큰 걱정이어서 삼신 할머니께 지성을 드리다. 신령께 제사를 지낸다 등 정성을 쏟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의 터줏대감격인 최생원 가문에서 손이 귀한 것은 지세탓인지도 몰랐다. 차츰 최생원 집은 웃음이 없어졌다. 급기야는 유씨부인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최생원은 자신이 복이 없음을 한탄하며 술에 빠져들게 되었다. 집안은 이렇게 일그러져 가고 있으나 유씨부인은 아픈 중에도 새벽 불공을 잇지 않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던 유씨 부인은 대문밖에서 목탁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 계집종도 심부름을 보낸터라 유씨 부인은 손수 쌀을 퍼들고 나갔다. 대문 밖에는 스님이 걱정스런 안색으로 목탁치기를 멈추고 서 있었다. 유씨부인이 쌀되를 건네자 함장과 함께 스님은 "허엄- 거참 큰 일이고" 하고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유씨부인은 급히 그를 제지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스님은 난색을 표했으나 병색이 짙은 부인의 끈질긴 추궁에 못이겨 말을 했다. 최생원이 사는 이 마을은 원래 "다실기" 즉 열매가 맺은 듯 자손이 번창할 곳이었으나 최생원 집터에 천년 묵은 지네가 들어간 이후로는 그 독기로 인해 자식 불 운세가 가리워 졌으니 땅을 파고 그 지네를 잡으면 될 것이되 다만 그 지네를 죽이지 않으면 더 큰 독을 내어 이웃 마을에까지 피해를 볼 곳이니까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얘기였다. 유씨 부인은 그 스님께 감사하고는 달려 들어가 취해서 잠든 최생원을 깨웠다. 사정이야기를 들은 최생원은 눈이 커졌다. 급히 마을 장정들을 모아놓고 지네를 잡기 위해 자기집을 헐겠다는 최생원의 말에 감복하여 너도 나도 집을 헐 후 새집을 짓는데 도와주겠다는 언약을 했다.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천년 묵은 지네는 엄청나게 커서 스며 나오는 독기는 다실기 운을 누를 만했다. 완전히 죽이고자 하여 불을 피워 태우기를 몇 시간 하여 또 그 뼈를 갈아 재와 뺏가루를 함에 넣은 후 부처님 상 옆에 두었다. 그렇게 하여야 부처님의 기운으로 해를 못끼친다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최진사의 집은 새로 더 크게 지어졌고 그 뒤 마을에는 경사가 겹쳤다. 아들 쌍둥이요, 딸이요..... 이집저집 모두 손을 본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마을에는 자손이 크게 번창하였고 자연히 마을 사람들도 다실기로 바뀌었으며 유씨부인과 최생원, 그 스님을 기리기 위해 탑을 쌓았다. 허나 그 탑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조사된 전통놀이나 집단행사는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끼리 작은 계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한다고 한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 단체

선장감리교회-선장면 군덕리 369번지 목사 김낙인 종파 : 기독교 대한 감리교 문화교회-선장면 군덕리 443-5번지 목사 박흥서 종파 : 대한예수교장로교

11) 공장현황

선장벽돌공장-군덕 429-5, 면적 3,628, 종업원수 2 벽돌브럭

12) 마을 특성

군덕리는 1923년도에 선장초등학교가 개교하였으며 1947년도까지 인천을 왕래하는 선박이 하루에 2번 운항하였던 선착장이 있고 농민을 위하여 농협, 과출소, 우체국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1980년 삽교천 방조제가 축조된 뒤에는 바다로 인한 상권이 사라진 지금은 농사를 주업으로 살고 있는 마을이다.